

으며 근로자 1인당 연간 예산은 5,000원이상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관리자가 전담으로 있는곳은 한곳도 없었다.

4. 대상자의 업무내용별 실시율에 있어서는 건당문제 호소자에 대한 사정이 7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근로자에게 간호제공 70.4%, 산업보건 및 산업근로자의 복지후생 57.9%로 나타났다.

5. 근로자에게 간호제공 실태는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전기·건설업, 서비스업의 순이었다.

## 일개 제조업체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의무실 이용실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 현 숙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와 의무실 이용실태, 그리고 건강문제의 간호처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공업전지역 1개 전선제조업체 근로자 1,064명을 대상으로 1985년 7월 1일부터 1986년 6월 30일까지의 산업간호원에 의한 건강관리 자료와 근로자의 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정기건강진단 자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의 2.9%가 건강문제 유소견자이고, 대상자중 고혈압 이환율은 2.4%였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중 36.3%가 유소견자이고 이중 소음성 난청은 7.7%, 소음성 난청 의심은 19.2%였다.

### 2. 의무실 이용자의 건강문제

① 의무실 이용자 중 호흡기계 증상이 24.7%, 소화기계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다음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계 증상이었다.

② 근무부서별로는 기능직에서 사무직 근로자보다, 근·골격계와 피부 및 피하조직계 증상이 많았고, 학력별로 보면 국졸 경우 근·골격계 증상이 많은데, 이들은 전부 관리부문 기능직 근로자이며, 대졸은 정신신경계 증상이 많은데 대부분이 사무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관별 분류에 따른 증상별 건강문제는 호흡기계증상 경우 대부분이 감기로, 기침, 전신통이 많고, 소화기계증상은, 소화불량, 상복부불편감, 속쓰림이 84.3%이었다. 근·골격계 증상의 37.4%가 요통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근육통으로 27.4%였다. 비뇨생식기계 증상은 전부가 생리통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계 증상은 외상이 36.3%, 외상으로 인한 염증이 19.6%, 화상이 7.6%를 차지했다.

### 3. 근로자의 의무실 이용실태

① 의무실 이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51.2%였고 총 이용건수는 4,297건이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4회의 이용을, 의무실 이용자 1인당 평균 7.9회의 이용을 보였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15건이고 월평균 358건이다.

② 일반건강진단 유소견자의 61.7%가 의무실을 이용했고,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이용횟수는 9.4회였다.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22명중 2명만이 의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계절별 이용 양상은 겨울과 봄철의 이용이 많고 여름철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④ 요일별 이용 양상은 금요일이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다음이 월요일로 나타났다. 35세이하 연령군은 월요일 이용이 높고 35세이상 연령군은 대체로 금요일 이용이 높았다.

사무직 경우 월·화요일 이용이 높고 기능직 근로자 경우 대체로 금요일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의무실 산업간호원의 건강문제 처치양상

건강문제에 대한 산업간호원의 처치 양상은 투약이 79.9%를 차지하고 측정과 관리는 9.9%, Dressing은 5.4%로 대부분의 처치가 투약으로 나타났다.

## 산업체 근무 건강관리 보건 담당자의 근무실태조사

최신의학, 제30권 제2호, 1987

문정순·김순례

1986년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일부 산업체에 근무하는 건강관리보건담당자 3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근무실태와 산업보건 업무활동 실시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산업보건 인력의 배치분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100명 이상업체에 대한 배치율은 59.3% (192개소)였으며, 근무형태는 전담, 겸직인 경우가 80.8%, 축탁이 19.2%였다.

보건관리자의 배치율은 59.9% (220개소)였으며, 이들의 근무형태는 전담 7.27%, 겸직이 8.18%, 축탁이 84.5%로 대부분 법규정에 의해 명목상 배치되고 있었다.

건강관리보건담당자의 배치율은 67.3%로 타인력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이들은 29.9%가 전담으로, 59.1%는 겸직으로, 10.9%는 축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배치율은 39%였으며 전담율은 18.8%, 겸직이 66.4%, 축탁이 14.6%였다.